

인간이 '나무 행성'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인간의 기나긴 여정 동안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준 것이 바로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나무의 서식지이자 점령지인 한 행성이다. 우리는 나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몇몇 사유 방식이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얻은 목재의 속결질로 책을 만든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앞으로도 나무에서 유래 될 듯 하다.” (본문 중에서)



나무처럼 생각하기

자크 타상 지음, 구영옥 옮김



이다. “우리의 적추는 유연하여 허리, 등, 목을 구부릴 수 있다. 사지는 곧게 뻗어 있으며 뼈 사이에는 튼튼한 관절이 있다... 손가락뼈는 관절로 이어져 있고 손에는 촉각이 고도로 발달해 있다. 근육이 붙어 있는 육체의 모든 골격은 나무가 생물에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다.”

철학자 로베르 뒤마는 “우리가 나무를 떠난 적은 없다”고 했다. 인간은 태고부터 나무와 함께 생존해 왔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나무는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과 나무는 다르지 않다. 빛을 향해 높을 곳으로 오를 수록 더 깊은 곳, 어둠 속, 심연 속, 불 속, 즉 깊은 땅속에 뿌리를 박는다.” 니체의 말은 인간은 항상 나무와 접촉된 상태로 생을 영위해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 나무에 관한 한 권의 책이 있다. 한 식물학자의 나무와 인간에 대한 사려 깊은 탐구를 기록한 책으로 ‘나무처럼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식물학자인 자크 타상의 ‘나무처럼 생각하기’가 바로 그것.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책은 세상을 옮겨주고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펼쳐낸다. 작가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나무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500만 년 동안 다양한 크기와 질감의 나뭇가지에서 영향을 받으며 우리 육체에 고유한 형태가 남았다”는 것



자라는 나무와 인간이 서로 적응하고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의 안녕이 고양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장성 측령산 편백숲. <장성군 제공>

데 비해, 인간은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한다. 나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니 존재하는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물의 세계에서는 결핍이 오히려 다양성을 만든다. “영양분의 부족과 종의 풍부함이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은 “토양의 척박함은 식물의 증식에 안정을 주고 구성물 각각이 조화롭게 공생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으며, 환경과 분리되지 않고 융화하는 현자의 모습 자체다. 또한 바람의 방향에 맞춰 성장하고 주변의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나무의 뿌리는 다른 종의 개체에서 나온 뿌리와 소통하는데 “지하의 키메라 같은 균근(菌根)을 만들기 위해 군사의 실뿌리와 서로 연결된 잔뿌리에서 이러한 소통의 표시”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무를 다시 곁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고집스러운 거대한 영장류가 ‘나무 행성’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 일까. 나무는 지속 가능한 유기 재료이며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나무에 더 많은 자리를 내주고 나무에게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나무와 서로 적응하고 새롭게 연합함으로써 나무와 연결된 운명을 재발견할 때 우리의 안녕은 고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관념, 상상 때로는 혼이 담기지 않은 과학의 길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 감성적 유대를 따라야 한다.” <더숲·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상냥한 사람

윤성희 지음



황순원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확실히 다져가고 있는 윤성희 작가. 윤 소설가는 평단과 독자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작가 중 한명이다. 윤 작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 ‘상냥한 사람’이 출간됐다. 인기 드라마의 아역배우였던 형민의 삶에서 시작해 그를 인터뷰하는 사회자, 형민의 가족 등 여러 삶을 차례로 조명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형구내 고물상’의 아역배우 ‘진구’로 짧은 인기를 누렸던 형민이 38년이 지나 ‘그 시절, 그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섭외되면서 전개된다. 사회자는 형민에게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묻고 형민은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소환한다. 모든 사람들이 형민을 진구로 부르던 시간으로 형민에게는 그다지 즐거운 시간이 아니다. 사실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형민의 삶은 점점 나빠져 간다. 연기활동을 계속하려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오디션을 낙방을 한다. 한때 결혼도 했지만 이혼을 했고 현재 아내의 세상을 떠난 상태.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될수록 형민의 머릿속에는 불행한 일들이나 잘못된 선택들로 가득차게 되고,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주인공 형민의 삶은 주변의 ‘잘 안 풀린’ 사람의 이야기이거나 우유부단한 나머지 그로 인해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작가가 촘촘히 엮어 낸 형민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의 슬픔을 견딜 수 있”는지 소설을 쓰는 동안 거듭 물었다고 말한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잊기 좋은 이름

김애란 지음



사람의 이름, 풍경의 이름, 사건의 이름... “두근두근 내 인생”, “비행운”, “바깥은 여름”의 저자 김애란이 한 시절의 고민과 마음이 담긴 이야기들을 산문집으로 묶었다. 지난 2002년 등단한 이후 17년 동안 기록해온 김애란 작가의 산문은 작가의 작품만큼이나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어떤 이름들을 잘 모르고 삶을 자주 오해하며 살고 있고 있습니다. 무언가 호명하려다 끝내 잘못 부른 이름도 적지 않고요. 이 책에는 그런 저의 한 시절과 무능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산문집에 실린 글은 뜨겁고 싱그러운 기운으로 넘쳐난다. 작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설가로서의 얼굴 너머 소녀로서의 얼굴, 아내로서의 얼굴, 시인으로서의 얼굴, 딸로서의 얼굴, 인간으로서의 얼굴 등 다양한 면모를 풀어낸다. 작가 자신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때로 서러운 음색으로, 때로 구성진 입담으로 다가온다.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웅숭깊은 눈길과 특유의 구성진 언어와 만나 빛어지는 글은 알싸한 향기를 선사한다. 이번 산문집에는 타인과의 이해를 좀 더 곱씹어보게 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나를 떠나고 멀리 가더라도, 끝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세상살이의 이치가 있다. 누군가에게 받은 연피에 대한 단상은 그런 통찰이 담겨 있다. “연필 전 손에 힘을 주면 책이 흐릿한 흠이 파인다. 그 흠에는 내가 어느 문장에 줄 그은 순간 느낀 시간과 감정이 고인다... 그 스침이 흠 꽃잎 한 장의 무게밖에 갖지 못한다 해도, 이야기의 이어달리기, 이야기의 배터터지가 계속되길 바란다. 대부분 연필이 길고 둥근 이유도 실은 그 때문이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열림원·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K47

래리 커허너 지음, 유강은 옮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살상 도구. 내구성, 저렴한 가격, 편리한 조작, 강력한 살상력으로 유명하며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제3세계 소년병에게까지 보급되는 등 전세계 인구 77명당 1명꼴로 갖고 있는 총. 전체 돌격소총의 절반이 넘는 9000만~1억정이 생산되며 세계 곳곳의 전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베스트셀러’ AK47 돌격소총은 그야말로 세계사를 바꿔 놓은 전설적인 무기였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래리 커허너가 전쟁의 역사 속 AK47 돌격소총이 겪어 온 일생을 추적한 책 ‘AK47’을 출간했다. AK47은 1949년 소련군이 처음으로 보병 기본 화기로 공식 채택한 순간부터 작동이 간단하고 튼튼하며,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뢰도를 잃지 않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심지어 값도 싼 ‘똥똥’이었다. 하지만 AK47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무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데는 이런 기술적 장점 외에도 정치적 요인까지 작용했는데,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소련이 특허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비화도 숨어있다. 이 책은 AK47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된 사건 등을 낱알이 파헤친다.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전차병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AK47을 개발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아프리카의 신용카드’가 돼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또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약 카르텔과 엮이게 된 과정, CIA 본부 AK 총기난사 사건, AK47을 압수하려 한 UN무기회의 등 사건에서 현재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기록을 담았다. <이데아·2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